

# 지역 간 갈등 넘어 상생협약

군산·서천, 초광역 모범사례... 지역발전 이끌어



군산과 서천 두 지역이 지역 간 갈등을 넘어서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길을 열고 있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금강을 사이에 둔 이웃사촌이지만 그동안 금강하구를 기반으로 금강도 개발과 해수유통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십수년 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양측 지자체장의 상호방문과 교류로 관계회복에 청신호를 밝혔으며, 그해 12월 군산시민체육회와 서천군체육회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면서 교류가 활발해졌다. 이어 2015년 2월 10여 년째 중단됐던 군산·서천 행정협의회가 재개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다시 재개된 군산·서천 행정협의회를 통해 △금강철새여행 공동개최 △동백대교 명칭 공동 선정 △양시·군 유류시설 상호간 추진 등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민감한 문제였던 금강도 개발 등 금강하구 문

제는 더뎠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선7기에 이르러 현안 조정을 위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산시 해신동·서천군 장항을 자매결연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 공동추진 등의 협업을 이어오며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금강하구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공동추진함으로써 진정한 상생과 협력의 길이 열렸다.

금강하구 개발에 대한 양시·군의 공감대가 형성되자 이를 원동력으로 2020년 12월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충청남도, 군산시, 서천군이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군산시와 서천군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간 해수부에서는 금강도 활용방안 등 항만개발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환경 문제 등으로 제자리걸음만 계속해오다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군산과 서천

의 상생협력이 구체화 되자 '제3차 항만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금강도 재개발 사업과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사업을 반영했다.

이어 개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예산이 2022년도에 5억원이 확보됐으며, 지난 3월 전문가, 주민대표, 기관대표로 이뤄진 '군산항·장항항 지역상생협력체'가 출범되어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충청남도, 군산시, 서천군이 상호협력하여 금강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오랜 숙원사업이었지만 지역 간 이견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던 금강도는 군산 내항 항로 준설토로 조성된 인공섬으로서 여의도 면적의 0.7배 크기(202만㎡)에 군산 쪽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200여 미터에 불과한 만큼 도심권과 가까워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대감을 모으었다.

'제3차 항만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금강도 재개발 사업은 사업비 4,344억원을 들여 생활체육 시설 및 대규모 공원, 체험형 관광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금강하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군산시와 서천군은 2015년 재개된 행정협의회를 통해 총 30건의 협력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양시·군의 상생협약 노력이 금강도 개발이라는 결실을 본다면 지역 간 갈등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남을 것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 재해위험 정비... 안전한 도시 조성

익산시, 사업비 총 380억원 확보 총 7개 지구 공사 진행

익산시는 재해위험이 있는 곳을 지역별로 정비해 각종 재난으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

시는 총 7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크게 재해위험지구와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배수로·우수관 정비 펌프장·저류지 신설 지방하천 제방 보축 소화천 저수지 정비 등 종합적인 방재시설물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3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안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석탄지구는 공정을 30%로 2024년 준공, 관문지구는 공정을 20%로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여산지구는 현재 설계단계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계를 진행해 2025년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성당·송천·아리랑·용두산 총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당·아리랑 지구는 공정을 10%로 2024년 준공, 성당지구는 공정을 20%로 2023년 준공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용두산 지구를 지정해 급경사지 정비를 통

한 재해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재해위험정비사업과 더불어 인화지구에 우수저류시설도 설치하고 있다. 현재 공정을 60%로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우수저류시설은 빗물을 지하 탱크에 저장했다가 비가 그치면 방류하는 시설이다.

이를 통해 인화동 일대에 1.32ha에 달하는 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전국 최고 청년창업 도시 건설”

정현을 예비후보, “익산역 복합개발 연계 청년스타트업밸리 조성”

정현을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전국 최고의 청년창업도시 건설을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KTX익산역 일원에 청년스타트업밸리를 조성해 전국 최고 청년창업 메카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TX익산역 복합개발을 통해 호남 최대 교통 허브로 도약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취·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역세권에 청년스타트업밸리를 조성해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여드는 청년창업 메카로 발돋움시키겠다"고 피력했다.

정 예비후보는 또 "대한민국 제1호 익산청년시청 내 '창업인큐베이팅' 공간을 중심으로 취·창업 서비스를 강



화해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정책을 강화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에 주택임차 이자 등을 지원하는 익산형 기본주택제도로 '10년 안에 내 집 마련하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과 복합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호남을 아우르는 교통 허브로 거듭나겠다"면서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과 상암시설단지 조성, 국제철도화물 물류기지 건설 등에 나설 계획을 시사했다.

정현을 예비후보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역세권 개발로 KTX익산역을 호남 최대 경제혁신거점으로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청년 맞춤형 창업·주거 지원 정책으로 기업과 청년 인재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 통

군산시 보건소, 11일 부터 신속항원검사 중단

군산시는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월명체육관)에서 진행했던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정부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중단하고, 보건소에서 PCR 검사만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월명체육관 신속항원검사는 지난 2월 8일 첫 시작 이후 62일만에 검사를 중단하게 됐다. 지금까지 60,657(6일 기준)건의 신속항원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월명체육관 자가 신속항원검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하는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것이다.

또, 월명체육관 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한 신속항원검사 수는 방역패스 중단 이전 일평균 1,230건에서 감소해 이달 초 400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은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체납 과태료 징수 총력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성실 납부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올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종합)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 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해 기준 32.7%로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과태료를 안내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매일 과태료 납부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과태료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편 미수령으로 인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의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 익산시, 친환경 농촌마을 만들기 '첫걸음'

익산시는 다양한 환경보전 프로그램으로 친환경 농촌마을을 확대한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성당면 회선마을, 여산면 관원·원태·노동마을 등 2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 국비 포함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시작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참여 마을당 6억5천만원씩 5년간 지원해 토양·용수·생태 경관 분야에서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유도하고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사업에 관심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명예농업 시장과 농업환경 전문가와 포럼을 2차례 개최하는 등 1년 이상 준비해왔다.

이는 올해 초 사업신청서 작성부터 전라북도 현장심사, 농림축산식품부 발표·현장심사까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익산시와 2개 마을이 끊임없는 소통과 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낸 결과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농가 소득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경관숲 확대로 탄소중립 앞장

익산시는 권역별로 경관숲을 확대해 지구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에 앞장선다.

시는 4월 중순까지 8억8천6백만원을 투입해 봄철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한라산 용화산 등 주요 산림지역과 공공승마장 등에 68ha 규모의 편백·백합나무와 목련·수국 등 경관수 총 11만 그루를 식재해 산림자원을 육성한다.

또한 내년 준공 예정인 국립 익산치유의 숲(용포리 산55번지 일대) 조

성지 인근 산림에도 편백나무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치유의 숲과 연계해 조성되는 편백나무 숲에는 총 10ha에 2만 그루가 식재된다.

조성이 완료되면 풍부한 피톤치드를 발산해 쾌적한 산림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익산 공공승마장에 미세먼지가 감응효과가 탁월한 측백나무과의 에메랄드 그라스를 심어 대기질을 정화하고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